금속노조통신 027호

발행일 2024년 6월 13일(목) | **발행인** 장창열 |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거부하면 금속노조 총파업이다"

12일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 성사 … 7월 총파업 예고

금속노조가 6월 12일 오후 2시 여의도 일대에서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타임오프 철폐·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벌이고, 22대 국회를 향해 법 개정 요구를 알렸다.

금속노동자들은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노조 전임자 수를 정부가 강제로 축소하는 '타임오프 탄압'을 비판하고, 노조의 재정 운영 정보를 국가가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회계공시 강요에 대해 분노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이번 국회에 통과해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타임오프, 회계공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등 민주노조를 없애려고 만든 장치를 쓰레기통으로 보내자고 모였다. 하지만 의사당에 틀어박힌 국회의원은 꿈쩍하지 않는다"라며 "금속노조의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지배자들의 질서에 맞짱을 뜰 때다"라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김선영 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를, 전일영 대전충북지부 APTIV지회장이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를, 김명성 경남지부 SNT다이내믹스지회장은 방위산업체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당사자 발언으로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연대의 말을 전하고,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산별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7월 10일 ILO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과 임단투 승리를 목표로 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해방, 연대, 치유의 시간”

여성의 힘으로 안전한 일터를! 여성조합원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김명희 충남지부 현담산업지회

금속노조가 6월 4, 5일 이틀간 충북 영동 레인보우연수원에서 ‘여성조합원 수련회’를 열었다. 전국의 금속노조 여성 조합원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첫 번째 시간은 여성노동자 노래 배우기! ‘딸들아 일어나라’, ‘우리가 원하는 건’, ‘여성총파업가’ 모두 3곡을 배웠다.

고백하자면, 세 곡 다 이날 처음 들었다. 짧지 않은 시간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해 왔고 집회 등에서 부르는 노동가요는 대부분 안다고 생각했는데…. 당황하며 ‘여성 활동가이면서 정작 여성 노동자를 주제로 한 노래는 모르고 있었구나’ 반성했다. 지회 여성 조합원들에게 이번에 배운 노래를 알려주고 싶다.

‘여성의 산업재해 경험과 성인지적 노동안전보건활동’이라는 주제의 교육은 말 그대로 알찼다. 수련회 주제가 ’우리가 바꾸는 노동환경, 여성의 힘으로 안전한 일터를’인 만큼 여성 노동환경의 고민을 많이 담았다.

윤성희 강사가 여성 노동자들에 발생한 산업재해와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노동 안전을 사례로 설명했다. 현장 사례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니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안타깝게도 교육 때 나온 모든 사례가 머리에 그려졌다.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금속노조가 현장 노동안전을 적극 챙겨도 산재가 생기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어떨까? 무노조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겪을 불편과 위험이 떠올랐다. 여성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사측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시급하다. 노동조합 필요성과 역할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다.

일하는 내 몸 어디가 아픈지 스스로 살펴보고, 성평등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결심을 같이 나누기도 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은 평등한 현장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언뜻 떠오르지 않았다.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 평소 부족했나 새삼 반성하게 된다.

자동차업종에서 일하는 다른 참가자들의 생각을 들으며 아이디어를 얻는다. 금속노조에는 사무직, 비제조업 노동자들도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현장의 상황을 듣게 되니 새롭기도 하고 이해도 넓어졌다.

일하는 곳은 다르지만, 금속노조 조합원이자 여성 노동자라는 공통점으로 모여 각자의 노동과 일상에 대해 털어놓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같음과 다름 속에서 해방감과 연대를 느꼈고 치유의 시간을 보냈다. 배움의 시간도 알찼다.

현담산업지회를 비롯한 금속노조 모든 여성 조합원이 내가 이번에 보낸 이틀의 시간을 꼭 경험하길 바란다. 다음을 또 기약해 본다.